

광양매화축제 '상복 터졌네'

트래블아이 어워즈 3년 연속 최우수 봄축제 선정...명품축제 위상 빅데이터 최고 인기상·내고향 명품우수축제대상 등 올해만 3관왕

광양시는 제21회 광양매화축제가 제5회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최우수 봄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광양매화축제는 최우수 봄축제 3년 연속 선정 기록과 동시에 빅데이터 최고 인기상, 내고향 명품우수축제대상 등에 이어 올해만 3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어워즈는 관광플랫폼 트래블아이와 관광정보신문 트래블투데이가 관광산업의 지역별 편차를 특허 기술화한 지역 호감도를 기반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자리다.

제21회 광양매화축제는 지역호감도, 축제, 관광수용태세, 관광시설, 관광콘텐츠, 시티투어, 관광마케팅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이번 어워즈에서 축제부문 최우수 봄축제로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3시 안동 그랜드호텔 1층 연회장에서 개최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관광의 현 주소를 생생하게 읽고 미래를 열어가는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광양매화축제가 3년 연속 최우수 봄축제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최근 빅데이터, 내고향 명품축제 등 다양한 어워즈에서 주목받는 광양매화축제가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강해 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어워즈에서 '지역호감도' 광역시 부문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 기초자치체에서는 여주시, 창원시, 통영시가, '축제' 부문에서 봄은 광양시, 여름은 강릉시, 가을은 안동시, 겨울은 태백시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어워즈에서 최우수 봄축제 부문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 기초자치체에서는 여주시, 창원시, 통영시가, '축제' 부문에서 봄은 광양시, 여름은 강릉시, 가을은 안동시, 겨울은 태백시가 각각 선정됐다.



제5회 트래블아이 어워즈 최우수 봄 축제에 선정된 광양매화축제. <광양시 제공>

최우수, (주)남이섬이 관광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체, 1개 관광 선도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2019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도 지정된 제21회 광양매화축제는 지난 3월,

젊고 감성적인 콘텐츠로 축제기간 134만 명, 3월 한 달 200여만 명 방문객을 불러 모으며 가능성 있는 명품축제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 탄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내년 정부 예산 반영

광양시는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국비 100% 1900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2.1km의 도로를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울촌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는 정현복 시장이 직접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광양항 3억 t 달성 기념식,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광양항 초도순시 등 여러 차례 직접 장관과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2020년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이 완공되면 광양시와 여수시의 기존 수송 거리 16km를 2.1km로 단축하여 광양항 인근 3개 시(광양시, 여수시, 순천

시)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황금 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촌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등과 광양항 배후단지의 생산과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양항 인근 산업단지의 연간 물동량은 200만톤으로 장래에는 1300만톤으로 물동량이 6.5배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여수 공항 접근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민석 광양시 철강항만과장은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관해 2020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산부가 용역 중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항 배후단지 일자리 지원 'Hi-Job 프로그램' 개최 기업-지역대학생 구인·구직난 해소 기대



지난 15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린 'Hi-Job Program'에서 김인환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대학생,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배후단지의 특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Hi-Job(Hinterland Job) Program'을 개최했다.

Hi-Job Program은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구인난과 지역 청년들의 구직난 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공사가 최초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항만물류 일자리 체험(Hi-JOBUS), 항만물류 직무 및 현장 탐색(Hi-JOB Navigation),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Hi-JOB Matching)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울 연발과 내년 채용 수요가 있는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4개사의 채용담당자와 항만물류 전공 지역

대학생, 진학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항만물류 현장 체험, 취업 상담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에게는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소개와,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인환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운영본부장)은 "항만·물류 분야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유망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주기업 구직난 해소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톡톡 튀는 포스코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7건 우수 선정

포스코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15일 '제4회 포스코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광양에 위치한 월드마린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포스코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전남, 광양지역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 활성화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포스코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8월부터 한달 간 광양시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대학(원)생, 일반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7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본선 진출자들에게는 벤처창업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 향상 교육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이시우 광양제철소장, 박성진 포스코 산학연협력실장,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지역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윤진성 (주)핏투게더 대표가 '우수벤처기업의 성공스토리'를 주제로 발표를 갖고 이찬희 전남대기술지주 본부장, 유주현 (주)포스텍홀딩스 대표,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등 패널들과 함께



지난 15일 제4회 포스코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계자들이 참가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광양지역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어 2부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7개의 벤처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최우수상의 영광은 '2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델리웨이브(Deliwave)' 아이디어를 발표한 (주)티엘이 흥영근 대표에게 주어졌다. 우수상은 (주)아이웍스의 '고글을 이용한 스마트 항만물류추적 검수시스템'과 (주)에이블프로원의 '반도체를 이용한 공기정화장치 필터'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주)티엘이의 흥영근 대표의 아이디어는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 비상 정지로 차량이 멈춘 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을 고휘도 LED 램프를 갖춘 장치를 통해 후방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실용성과 안전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우수상 한 팀에게 상금 500만원, 우수상 2개 팀에게 상금 300만원, 장려상을 받는 4개 팀에 각각 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행사장에 본선 진출팀들의 시제품과 더불어 광양지역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시해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실제 구매 상담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조직 개편 추진

관광문화환경국·여성가족과 신설

광양시는 관광문화환경국과 여성가족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는 내년에 공무원 68명이 증원됨에 따라 주민복지와 보건, 여성, 환경, 관광, 주민자치 분야 등 신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원도 1051명에서 1119명으로 늘어난다.

광양시는 7개 읍면동 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관광 업무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규 인원으로 68명을 신청했다.

정원이 늘면서 본청에 4급(서기관) 기구를 신설할 수 있게 돼 관광문화환경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읍면동 사무소에 신설될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는 여성가족과(5급 과장)도 신설한다.

일부 부서의 명칭도 바뀐다.

교육보육센터는 교육보육여성성센터로, 환경관리센터는 물관리센터,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실로 이름을 바꾼다.

전략정책담당관은 전략정책실로, 감사담당관은 감사실, 홍보소통담당관은 홍보소통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로 바뀐다.

광양시 관계자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